

토요그림경매, 창작지원·시장활성화 '두토끼' 잡았다

산수화와 배롱나무가 어울리는 곳, 한국 남중화의 본산지 윤림산방은 '예향의 고장' 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소치 허련이 평생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그의 자손들이 남중화의 맥을 이어온 윤림산방은 풍경 자체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면서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남중화의 성지 윤림산방에서는 매주 토요일 작가들의 그림을 판매하는 경매행사가 열린다. 기량은 뛰어나지만 생활 미술이 열약한 지역 전업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남도에술은행 '토요그림경매'이다.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진도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토요그림경매가 어느새 4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6년 8월 시작해 쉽지가 않았던 토요그림경매는 그동안 3267점의 작품을 구입해 2974점을 판매했다. 지역 작가들로부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 후 2차 감정평가까지 이뤄진 후 구입된다.

작품구입비는 자체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 수입금의 5%를 지역 작가들의 사기증진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400회라는 기나긴 여정을 달려온 토요그림경매는 생활기반이 열약한 전업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일반인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업 작가들의 창작지원에 초점



지난 2006년 첫선을 보인 진도 윤림산방 토요그림경매가 오는 4월 5일로 400회를 맞는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400회 눈앞... 작품 3267점 구입 2974점 판매

진도의 명물... 전국 미술 애호가들 발길 이어져

을 맞추다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작가가 많아 호응도가 다소 떨어진다. 지적도 받아 왔다. 전문 미술애호가들의 수준에 맞는 작품 판매와 토요그림경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서순숙 토요그림경매 큐레이터는 "400회 특별경매를 통해 중진 작가들에 대한 작품

을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남도 미술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작품 구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며 "앞으로는 윤림산방과 연결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 구입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토요그림경매의 명소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4월 5일

토요그림경매 400회를 맞아 특별 야외경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오전 11시 윤림산방 내 그림경매장 앞에서 400회 특별 야외경매를 열고, 소장작품 30점을 10만~40만원 균일가에 선보인다. 또 전종구 한국예총 전남도지회장, 박홍수 조선대 교수 등 '전남 알리미 홍보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이들의 기증작품 특별 경매도 진행한다.

'포커 케이스' 연주단의 초청공연 '전남 예술인 초청,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전남도립국악단의 한국 무용 공연, 진도 윤림예술촌의 진도 북춤 공연, 진돗개 모기 공연도 펼쳐진다. 문의 061-280-583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800년 전 '마도 1호선' 복원한다

강진서 개경으로 생활물품 나르던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800여 년 전 탐진(耽津·현 강진)에서 개경으로 남도의 생활물품을 실어 나르던 배가 복원된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25일 고려시대 전남 지역의 수령현(遂寧縣·현 장흥), 죽산현(竹山縣·현 해남), 회진현(會津縣·나주) 등지에서 거둔 곡물과 생활용품 등을 개경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조운선(漕運船) '마도 1호선(1208년 제작)'의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 전체 예산은 4억여 원이다.

'마도 1호선'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0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 침몰돼 있는 것을 수중 발굴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작업은 25일 '배짓기' 고사를 시작으로 10월30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복원과정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며, 복원현장에는 안내관, 대형캐널, 축소 모형(1/20) 등이 비치된다. 또 복원과정 중에 명에(외관들을 연결시켜 주는 지지대)를 올리는 상가고사(배가 절반 정

도 만들어졌을 때 지내는 고사)와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진수고사도 진행한다.

복원은 고려시대 조선기술 방법과 같은 아름다운 통나무로 제작된다. 또 쇠못 대신 나무를 쥘아 못으로 사용하고, 돛은 대나무로 엮어 올린다. 선재 수공은 최대한 도끼, 대패, 톱, 끌 등 전통연장공 제작기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복원된 마도 1호선은 내년 충남 태안에 건립되는 서해유물보존관에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라시아 대륙철도 'X축' 복원해야"

목포축·부산축 X자 교차

강시장, 충청·수도권 공동 대응

광주시가 충청·수도권과 연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X축'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준태 광주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라시아 대륙연결철도는 DJ 정부 때 '목포축'과 '부산축' 등 2개 노선이 한 반도를 X자로 교차하도록 결정됐으나, 2006년 이후 부산을 기점으로 한 노선만 언급되고 있다"며 "목포를 기점으로 하는 '호남축'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DJ정부 때인 1999년 작성된 국가간교역망 계획을 보면, 목포에서 출발해 오성·서울·원산·청진·나진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노선과 부산·동대구·대전·서울·평양·신의주·중

국횡단철도로 연결되는 노선이 X자로 국토를 교차·연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6년 작성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목포축이 빠져있으며, 2010년 국가간교통망계획에서는 부산기점의 중국·러시아·유럽대륙 연결 철도망 계획만 언급돼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호남과 충청, 수도권을 배제하고, 부산을 기점으로 강릉·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연결 철도망계획에서 호남축이 어떤 연유로 누락됐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밝혀야 한다"면서 "X축 복원을 위해 노선에서 누락된 충청·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시·도지사 출마 후보들에게 공동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지역 공공기관 중 여성비율 가장 높아

한전KPS 2.7% 최저... 전국 6만4232명, 4명 중 1명 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중 전남대병원의 임직원 여성비율이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KPS의 여성비율이 2.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4명 중 1명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4곳의 임직원 25만3453명 중 여성은 25.3%인 6만4232명이다. 이는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나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115곳(36.6%)이었다. 이 중에서도 여직원 비율이 10%를 밑도는 곳은 42곳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39.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34.4%), 한국콘텐츠진흥원(3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9.3%), 한국전력공사(1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17.0%)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기

관별 특성에 따라 한전 계열은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임직원 335명 중 여직원이 한 명도 없다. 건설 분야 사업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아 여직원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도 정규직 임직원 9명이 모두 남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석탄공사(2.3%)와 한전KPS(2.7%), 한국가스기술공사(2.7%) 등도 여직원 비율이 낮다.

반면 여직원이 절반 이상인 공공기관은 47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15.0% 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여직원 비율 (나주혁신도시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명)	여성(명)	비율(%)
전남대병원	2895	1790	61.8
한국문화예술회관	98	39	39.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61	21	34.4
한국콘텐츠진흥원	194	63	32.5
한국인터넷진흥원	310	85	2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2	44	2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53	45	17.8
광주과학기술원	267	46	1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5	23	17.0
한국전력공사	1만9634	3142	16.0
한국농어촌공사	4948	461	9.3
한전KDN	1226	94	7.6
여수광양항만공사	143	8	5.6
한전KPS	4714	129	2.7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9만7000명의 직원 중 2만4535명으로 27.1%에 달했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였고 고용률은 48.8%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를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